

문화특집

부안군의회 김형대의원, 전북지구
JC 특우회 중앙회장 특별표창 수상

전북지구JC 특우회 김형대(남부안 특우회회장/부안군 의원) 부회장이 지난 15일 개최된 '2016 전북지구JC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에서 한국 JC 특우회 중앙회장 특별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형대 부회장은 평소 JC 이념을 토대로 헌신적인 협조를 통해 한국JC 특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한국JC 역사와 함께 하는 전북지구JC의 부회장이로서 앞으로도 순수한 청년의 열정과 진통을 이어오신 많은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고 더욱 계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전북지구의 위상과 JC 특우회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려고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JC 특우회 진흥회 중앙회장, 송하진 도지사,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기관·단체장과 도내 JC 특우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연예인 공연을 비롯한 각료특별장기차량 등 회원들을 위한 경품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돼 회원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재향군인회, 훈련 장병 위문

김제시 재향군인회(회장 박영봉) 및 임원들은 지난 17일 원주 동원훈련장을 방문하여 훈련중인 김제대대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사기를 진작 시켰다.

박영봉회장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5차 핵실험으로 국가가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배치등을 가지고 국민들의 국론이 한마음되고 국군은 물심양면이 완벽한 경계태세와 적도 살피 즉각 응징으로 적을 무력화 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했다.

김제시재향군인회는 안보관련행사 및 추모행사 그리고 영·효상 행사등 시민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 고취에 앞장 설 뿐 아니라 지역경제 살리기 및 봉사활동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민방공 지진대피훈련 실시

정읍시는 오는 19일 제403차 민방공의 날 민방공 지진대피훈련을 시 전역에서 실시한다.

시는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대규모 강진 발생으로 주요 시설 및 건축물이 흔들리고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을 설정 전국에 지진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진 발생 시 대피훈련 실시한다.

시는 이날 공무원 리·통 민방위대장, 여성민방위대원, 해병전우회 회원, 모범 운전자연합회 회원 등을 비롯한 아파트, 집합건물 등에 배치하고 시민들의 지진 대피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정읍경찰서는 주요 도로 사거리에 경찰을 배치해 운행 차량에 대한 교통수신호 등 차량 통제에 나서며 정읍소방서는 사전 초동학교에 소방편을 파견해 지진대피 행동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실제훈련도 지원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학교 등 11개교 1만7천28명의 학생 및 교직원과 정읍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범훈련도 실시된다.

시범훈련에서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국민 지진대피 요령을 숙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해 적절한 대응관단이 어려운 만큼 평소 주민행동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행동요령을 숙지토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600년 역사 자긍심을”

군, 24~30일까지 기념주간… 퍼레이드·학술대회 등 행사 다채

부안군은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청년의 비전 제시를 위한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주년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기념주년을 맞아 부안 60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6만 주민이 하나 돼 비전을 선포하고 부안의 새로운 청년을 함께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기념주간은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부안 6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6만 주민이 하나 돼 새로운 미래 청년을 함께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기념주간은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부안 6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6만 주민이 하나 돼 새로운 미래 청년을 함께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현으로 나뉜 퍼레이드 단이 군청 광장에서 만나 두 현강이 순화대에 접회를 하면서 종료된다.

개회식과 함께 부안의 과거·현재·미래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미디어 퍼포먼스, 사에퍼포먼스, 비전 선포식, 성악·중창 등으로 실시된다.

이런 기념식에서는 부안 600주년을 맞아 6만 주민이 하나 돼 비전을 선포하고 부안의 새로운 청년을 함께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기념주간은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부안 6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6만 주민이 하나 돼 새로운 미래 청년을 함께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기념주간은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부안 6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6만 주민이 하나 돼 새로운 미래 청년을 함께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청하봉사회가 음식부스 운영 수익금 중 1백만원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기탁했다

청하봉사회, 1백만원 장학금 기탁

김제시장장학재단에

김제시장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은 18일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맛있는 지역특색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부스를 운영한 대한적십자사 청하봉사회(회장 최정규)가 음식부스 운영 수익금 중 1백만 원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청하봉사회는 봉사자와 사랑을 실천하는 적십자 정신을 가지고 2000년에 결성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봉사, 독거노인 돌보기, 어버이결연 봉사활동, 경로잔치 행사 개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실시한 결연세대 및 독거노인 초청 경로잔치는 회원들의 자발적 성금모금과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마련하여 더욱 의미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최정규 회장은 "재민금의 중심도시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전식 김제시장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까지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인재양성의 소기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최고액인 2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김제시장장학재단은 2007년 8월에 설립하여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및 과감한 장학금 지원 사업,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지평선학당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의원들 대립각 '눈총'

간담회에서 삐걱대고 고성 등

제7회 후반기 김제시의회가 의원들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반목을 거듭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으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제7회 김제시의회는 후반기 첫 출범부터 원구 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양보 없는 자라다름으로 나뉘며 먹거리 원구성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파국 눈총을 받았다.

최근에는 김제시의회 의장단 간담회에 자리에서 A의원들과 B의원 간 삐걱대고 고성, 목살이 오가면서 모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김제시의회 위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김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을 위한 행정감사 특별위

원장과,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조율 하고자 부의장실에 모여 의견을 나누던 중 A의원들과 B의원들은 현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과 고성으로 낮 뜨거운 행동 등을 보여 시의회 위상에 또 한 번 먹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시민은 "김제시의회가 갈 때까지 가고 있다면서 의원끼리 이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역을 위해 선출해준 시의원들의 행동이 정말로 참패하다"며 "황당하고 입에 담지 못할 참패하기 그 지않다 시의원이 아닌 의장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하는 일이다"며 꼬집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동화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사랑 행복 콘서트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김제시 '아이사랑 행복 콘서트' 개최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지난 17일 이동화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사랑 행복 콘서트"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김제시와 엔젤스뮤직앙상블(단장 이

성은)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생 450여명과 보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현악 연주와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아동과 보육 종사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이번 콘서트는

이동화대 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모으고자 개최했으며, 이동화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김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 아이를 잘 자라게 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아이들이 바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사회, 개인과 단체 간 소통과 연대가 어느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gsan Myeongju.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보였습니다.'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prices and the website www.gangsanwine.com.